

· 사회 변천과  
간호를 결정  
하는 요소 ·

## 의학적 견지에서

대한의학협회 회장  
趙 東 秀

數十年間 의료에 종사했으나 아직 간호에 對한 正確한 定義나 任務等에 對해 分明한 知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유감으로 生覺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아니라 大多數 各 醫療人 患者 乃至 一般人도 그저 莫然히 患者를 간호하는 것이라 생각할 뿐 간호업무의 重要성 그리고 그의 임무나 책임의 限界性을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럼으로 간호의 임무와 책임의 限界等을 分明히 규정함이 急先務일 것이나 이것이 그리 容易한 것 같지 않은데 問題點이 있는 것 같다. 특히 醫學에 關한 各種 新分野가 開拓되고 健康에 關한 概念이 變遷하는 現時代에 있어서 더욱 어렵지는 것 같다.

但 한가지 分明한 것은 日帝時와 지금의 認識이 현저이 달라진 것은 事實이다.

우리나라 醫療法을 보면 醫療人의 任務中 “간호원은 傷病者 또는 解產婦의 療養上의 간호 또

는 診療의 補助에 從事함을 任務로한다”고 되어 있고 醫療行爲의 範圍 種別業務限界 其他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事項等은 醫療審査委員會에서 이를 審議決定토록 規定했을뿐 아직 決定的示되지 않고 있다.

간호의 任務를 다음 몇가지로 分類해 보고 싶다.

첫째 醫師와 看護員의 關係: 醫師의 指示에 依한 診療補助

둘째 醫師—看護員—患者間의 關係: 即 醫師의 治療方針을 간호원이 患者에게 正確히 傳達하는 役割

셋째 간호원과 患者의 關係: 看護의 獨自의 任務와 責任에 依한 患者의 直接看護

넷째 간호원과 가족 乃至 一般人에 對한 健康指導 乃至 教育의 任務, 保健所에서 保健要員으로서의 地域社會活動, 家庭간호, 學校, 職場, 工場等에서의 活動.

以上 네가지中 첫째와 둘째는 종래의 觀念으로 그 責任限界가 比較的 잘 알려져 있으나 셋째의 경우 간호원이 患者를 위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좀 더 分明히 하고 넷째의 경우 간호원이 보건 지도자로서의 役割이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더 깊이 研究하는 것이 앞으로의 重要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셋째의 간호원과 患者의 關係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大多數의 경우 父母나 保護者가 있어 患者를 간호함으로써 간호원의 할 일이 훨씬 輕減될 수 있으나 한편 父母나 보호자에게 자기(간호원)가 할 일을 充分히 指導教育하는 것이 또한 重要的 責任일 것이다.

그러나 看護員이 患者에 對한 責任은 外國처럼 父母가 없을 때의 어린이 간호, 保護者가 없을 때의 重患者간호가 바로 患者에 대한 간호원의 任務, 責任 그리고 技術의 重要的 內容이 될 것이다.

自己 스스로 自己몸을 돌 볼 수 없는 어린이나 手術後處置, 昏睡, 起動不能, 失明, 失語 等等인 경우 食事, 衣服, 睡眠, 大小便取扱에서 부터

## Panel Discussion 및 전체토의의

### ○————요약과 제의————○



## 김 모 임

오늘 오후 너무도 귀하고 뜻있는 말씀을 다섯 분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잘 파헤쳐 주셨습니다. 말씀중 저희에게 자부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약점을 정확 신랄하게 지적 비판해 주셔서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좀 주제넘을 것 같아, 오늘 저녁, 또 앞으로 조용히 시간을 찾아 반추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 요약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 나름대로 몇가지 소감과 제안을 말씀

各種 醫學的 處置技術이 看護員의 任務이니 단치 이에 對한 새로운 知識과 技術의 發達이 看護教育에 必須要件임은 勿論이다.

또한 이 경우 患者의 非正常的인 心理狀態를 正確한 分析判斷에서 安靜安心케 하고 信賴케 하는 일 또한 看護員의 重要임무임은 勿論 환자운영시의 心理의 安定等 또한 간호원의 커다란 責任을 強調해야 할 것이다.

네째로 간호원이 保健要員으로서의 健康指導乃至 教育者로서 任務는 앞으로 더욱 開拓擴大해 나가야할 重大課題로 生覺된다. 社會변천에 따라 健康유지는 人間의 基本權利요 어린이, 老人, 病弱者等의 福祉는 그 個人보다 社會와 國家의 責任이요, 治療에 앞서 豫防에 重點을 두는 등은 간호任務의 擴大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各種 新分野의 發展은 業務의 類似 또 重複性을 招來케 될 것임으로 간호에 對한 새로운 定義와 責任限界를 分明히 할 것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 질 의 응 답

#### 조 동 수 박사

윤수복; 윤박사께서는 간호에 대한 통계를 늘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Conroy 박사께서 사회 발전이란 인간 생활의 제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동시 과정을 달한다고 전제한다면 사회발전은 사람의 복지와 안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하시며 보건 사업의 일익을 맡고 있는 간호학은 사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기본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교육적, 의료적수단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고

보아 왔는가 혹은 이 준비를 위하여 읽었는가? 윤; 간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을 위하여 몇가지 자료를 본결과 통계가 모두 달랐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며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 (또한 미국의 의과대학정원까지도 결정하는 미의사협회는 압력단체의 일레이다)

정 영숙; 조박사께서는 간호원은 환자의 need를 충족시켜 주며 환자로 하여금 refer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윤박사는 압력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조박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 동수; 압력단체는 필요한 때에 사용할 것이지 항용할 것은 못된다.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에게 알리는 것은 활동 상황을 늘 P.R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야 우리도 정당한 직위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므로, 협회활동을 외부에 P.R해야 하며, 간호가 무엇이며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일반사회에 알려야겠다.